

소 교리문답 제37문

1. 오늘의 공부

제 37 문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답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2. 꼭 읽어야 할 성구

눅23:43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37문의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는 다 아시죠? 교회에서도 매월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를 축하해 주고 있는데, 집에서 생일이 되면 부모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물도 줄 거예요. 것처럼 생일은 기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생일이 있으면 반드시 있게 되는 또 다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뭘까요? 예, 죽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원칙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 노쇠해져서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한답니다.

‘너는 세상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편히 쉬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데려 가시는 것이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만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성도 아닌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지옥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왜 성도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까요? 성도 아닌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살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나라인데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죄 있는 사람도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죄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모든 죄가 용서된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을 때 받는 유익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남은 가족이 그 몸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라는 곳에 모셔 두기도 합니다. 땅에 묻히면 썩어서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되고, 화장을 하면 하얀 재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죽은 후의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죽는다는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들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죽음은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나중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 할 수 있어 그것은 다 엉터리야’라고 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차들이 많은 도로에 아빠와 함께 걸어가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뛰어 다니도록 그냥 두고 보십니까? 아니죠? 여러

분의 손을 꼭 붙잡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면서 데려가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꼭 붙드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벌을 주시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덕분에 성도는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영원히 편히 쉬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죄만 있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죽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세상을 떠날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숨도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로 부름 받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② 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모든 죄가 용서된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을 때 받는 복입니다.

③ 성도의 몸이 죽은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고, 몸은 썩어 없어지든지, 화장을 하여 재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세상 끝 날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지금 우리들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생명(영생)이라고 말합니다.

④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도에게 죽음은 죄만 있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죽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세상을 떠날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숨도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로 부름 받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오늘 37번째 질문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씩 말해 볼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38문 :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습니까?

답 : 부활 때 신자는 영광중에 들어 올리우며,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6. 미리 읽을 성구

살전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